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파악 위해 지하철
탐승정보 등록 권장

산업·경제 사업확장 지원·기업유치 위해 '입지 정보' 제공

행재정·교육 '교원의 장시간 근무 줄이기' 추진

환경·안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선언
안전한 텃밭 조성을 위해 무료 토양검사 지원
나무 보호 및 개체 수 증가를 위한 대책 시행
음식물쓰레기와 식재료 낭비를 줄이는 요리법 등 제공

도시교통 구급차·소방차 등 도로 위 비상차량 안전 강화
출퇴근시간대 다인승차량도 이용가능한 전용도로
시범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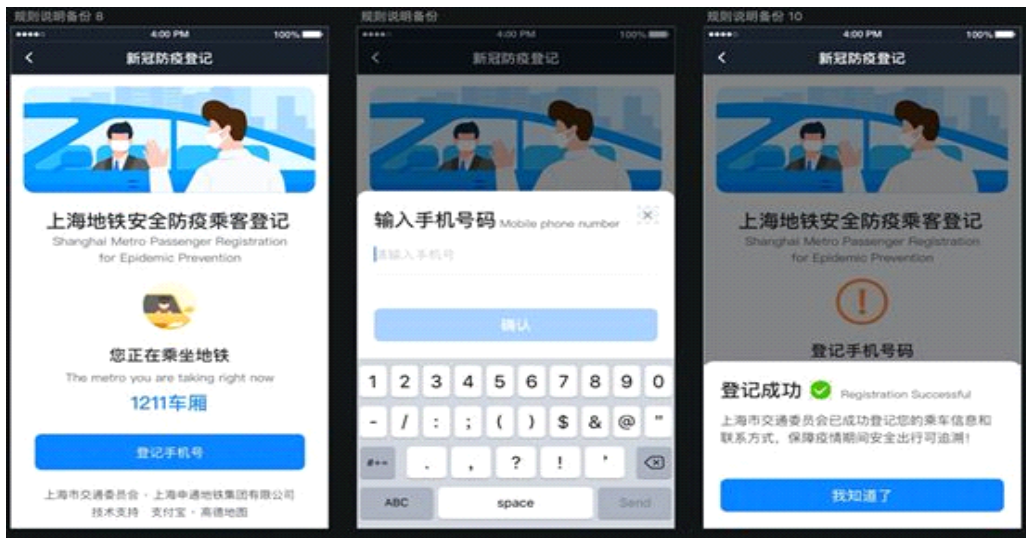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파악 위해 지하철 탑승정보 등록 권장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철 탑승정보를 등록하도록 권장



[그림 1] 상하이시 지하철이용객 탑승정보 등록 화면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6189689

배경 및 목적

-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지하철을 탑승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하철 탑승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부처에서 밀접접촉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市는,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주요 내용

○ 정보등록방법

- 시민들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정보 등록을 위해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음. 본인의 즈푸바오(支付宝) 혹은 웨이신(微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음
-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지하철 객실 중앙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자신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됨. ‘등록 성공(登记成功)’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등록이 완료된 것임
- 시민들은 지하철에 탑승할 때마다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환승하거나 탑승 후 객실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추가 등록이 필요

○ 특징

- 하나의 휴대폰으로 많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 만약 휴대폰이 없거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같은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탑승 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
- 市는 시민들이 등록한 개인정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
 - 시민들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
- 市는 지하철 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탑승정보를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등록을 시도해줄 것을 요청
 - 시민들은 정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핫라인 64370000에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 수 있음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바쁜 출퇴근 시간에 객실마다 한 개씩 부착된 QR코드를 찾아서 등록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객실에 여러 개의 QR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와 관련하여 市는 지하철 객실에 승차 안내문, 지하철 노선도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QR코드를 부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상하이시 지하철의 QR코드는 즈푸바오(支付宝)에서 제작해 부착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일부 지하철 노선에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市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지하철 객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 시 탑승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그림 2] 상하이시 지하철 객실 내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의 모습

출처: http://k.sina.com.cn/article_6145283913_16e49974902001047y.html

http://3g.163.com/news/article_cambrian/F6GBDKOR055040N3.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59768860291124720&wfr=spider&for=pc>

http://www.cnr.cn/shanghai/tt/20200228/t20200228_524995721.shtml

<http://sh.sina.com.cn/news/m/2020-02-28/detail-iimxxstf5055177.shtml>

사업확장 지원·기업유치 위해 ‘입지 정보’ 제공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일본 교토市는 사업확장이나 교토市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단체나 사업자와 협력해 부동산을 찾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에 부동산 매각 등을 희망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교토시 기업 입지 매칭 지원 제도’를 시행

배경 및 목적

- 일본 교토市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기업 입지 종합지원 창구’(企業立地総合支援窓口)를 설치하고, 사업확장이나 교토市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市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나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교토시 기업 입지 매칭 지원 제도’(京都市企業立地マッチング支援制度)를 시행
 - 이 제도는 부동산을 찾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에 부동산 매각 등을 희망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희망 조건에 따른 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

-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 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에 있어 본사, 공장, 개발거점, 연구소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제조업 등의 기업에 부동산 매각, 임대 등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
 - 부동산이 상업 또는 공업 용도지역 내에 있고, 토지나 건물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함
- 제도를 이용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기업 입지 종합 지원 창구’에 제출
 - 市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 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은 없음
 - 市는 ① 입지 희망자 및 부동산 소유자와의 상담, 정보 제공, 조언 등, ② 기업 입지

지원 협력자와의 조정, ③ 市 산업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

- 이 제도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은 교토市 내에 있어야 함
 - 市는 공익사단법인 교토택지건물거래업협회, 공익사단법인 전일본부동산협회 교토부 본부,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을 비롯해 市가 지정하는 택지건물거래업자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음

기대효과

-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 입지에 적합한 부동산의 적극적 활용, 이에 따른 기업 유치 촉진, 산업진흥 및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기업 입지 지원은 고용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60824.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260/260824/flow.pdf>

<https://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151/151057/011216youkou.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교원의 장시간 근무 줄이기’ 추진

일본 오사카시 / 행정·교육

일본 오사카시는 교원의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기준과 달성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

배경 및 목적

-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원의 장시간 근무가 문제되고 있으며, 오사카시도 마찬가지
 -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9년 1월에 공개한 ‘공립학교 교사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교원이 60% 정도에 달함
- 학교 교육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건강하고 활기차야 함
 - 장시간 근무는 교원의 삶을 피폐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이 필요
- 시는 교원의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근무 시간 관리를 포함한 실효적인 업무개선책을 검토
 - 2019년 12월 10일 시 교육위원회는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기준이나 달성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정리한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계획’을 책정·공개

계획의 주요 내용

-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기준 설정
 - ① 1개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45시간, 1년간 시간외근무시간이 3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기준 ①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간 시간외근무시간이 720시간, 1개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개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45시간을 넘는 달을 1년간 6개월 이내로 함
- 일하는 방법 개혁을 위한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책 시행
 - 전문 스태프 강화
 - 학습자료 인쇄, 간단한 채점 업무 보조, 학교행사 준비작업 보조 등 수업 이외의

- 업무를 담당할 학교 지원 스태프를 초등학교·중학교에 배치
- 집단 괴롭힘, 문제 행동 등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직접 대응, 연수 등을 함으로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학교 법률가 제도를 구축
- 교원의 사무부담 경감
 - 학교에 대한 조사·조회 문서를 줄이고 학교사무직원의 업무 내용을 재검토
 - 우수한 수업 실천사례 등을 등록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교원이 교무 지원 컴퓨터를 학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에 관한 교원의 부담 경감
- 일하는 방법 개혁에 관한 연수나 학교 평가 등을 활용한 의식개혁
- 교내 LAN 환경을 재정비하고 교무계 네트워크와 학습계 네트워크의 통합을 검토하는 등 ICT 환경 개선
-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의 충실화
-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사례를 수집·소개
- 일하는 방법 개혁을 위한 각 학교 차원의 대책 시행
 - 교원의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퇴근 목표시간 설정, 학교 상황에 따라 4일 이상의 학교휴무일 설정, 등교 지도 당번제 등 근무시간 배정 검토, 교원의 시간외근무 내역 확인, 교원의 걱정 출퇴근을 위한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
 -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적정화
 - 특정 교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교무분담 재검토
 - 학교 실정에 따라 운동회,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과 같은 학교 행사 등을 재검토
 - 회의 내용이나 절차 등을 검토해 회의의 효율화를 도모
 - 학교가 지역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할 지역행사를 엄선하고, 참가 시 참가시간을 짧게 하거나 참가할 교원을 최소화하는 등 교원의 부담을 경감

<https://www.city.osaka.lg.jp/kyoiku/page/0000488823.html>

<https://www.city.osaka.lg.jp/kyoiku/cmsfiles/contents/0000488/488823/hataarakatasuisinplan.pdf>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ldfile/2019/01/25/1413004_1.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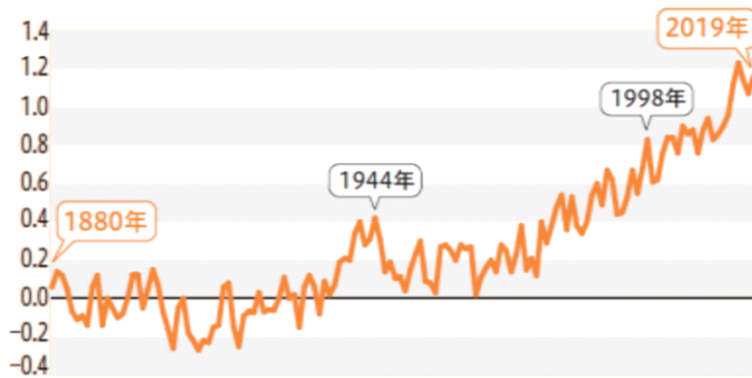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선언

일본 도쿄都 / 환경·안전

2019년 5월 U20(Urban 20) 도쿄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도쿄都는 세계대도시의 책무로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는 데 동참할 것을 선언. 그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배출 제로 도쿄 전략’을 수립

배경 및 목적

- ‘배출 제로 도쿄 전략’ 수립
 - 2019년 5월 U20(Urban 20) 도쿄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도쿄都는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배출 제로 도쿄’를 선언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비전과 구체적 체제·로드맵을 정리한 ‘배출 제로 도쿄 전략’을 책정
 - 중점 대책으로 세부 사업내용 등을 기술한 ‘도쿄도 기후변동적응방침’, ‘플라스틱 삭감 프로그램’, ‘ZEV 보급 프로그램’을 마련
 - ZEV는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연료전지자동차(FCV)를 지칭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
 - 현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880년 산업혁명 당시와 비교하면 1℃ 정도 상승했으며, 현재 추이라면 2030년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균 기온 상승을 1.5℃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쯤 CO₂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함
 -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는 것은 인간과 국가의 불평등을 없애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동반효과가 있음



[그림 1] 세계 평균 기온의 추이

출처: 미국항공우주국(NASA) 데이터(2019년 9월 시점)

전략 책정의 관점과 체계

○ 전략 책정의 관점

- ① 기후변화에 대비한 ‘완화책’과 이미 시작된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책’을 통합적으로 시행
- ② 자원순환 분야를 기후변화대책으로 격상하여 도쿄 이외 지역에도 이산화탄소 저감에 공헌
- ③ 에너지절감·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가하여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분야와 자동차 환경대책 등을 강화

○ 전략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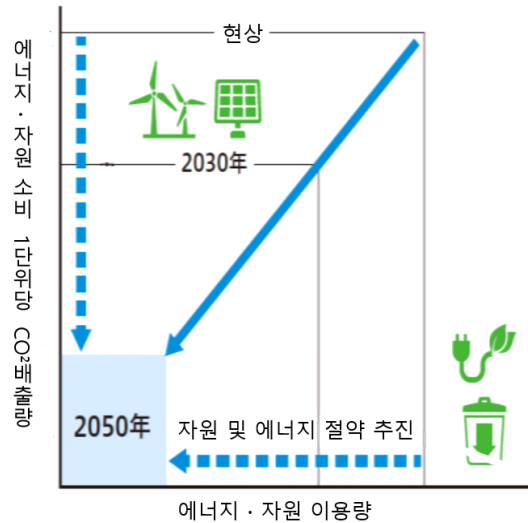
- 도쿄의 특성에 맞게 6개 분야 14개 정책을 체계화하여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미래상과 로드맵 등을 명시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30년을 중간목표 단계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2030년 목표 + 액션’(47개 항목·82개 액션)을 추진

○ 이 전략은 탈(脫)이산화탄소를 향한 도쿄도의 출발점

- 이 전략을 도민, 기업, NGO, 기초지자체, 국내외 도시 등 다양한 주체와 공유하여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매력 넘치는 도시 도쿄를 조성

[표 1] 배출 제로 도쿄 전략 체계의 개요

배출 제로 도쿄 전략 체계 : 2050년까지 관련 항목 CO ₂ 배출 제로	
에너지 섹터	① 재생가능에너지의 주 에너지화 ②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인프라 섹터 (건축물 편)	③ 배출 제로 빌딩 확대
도시인프라 섹터 (운송 편)	④ 배출 제로 운송수단 보급 촉진(자전거 등)
자원·산업 섹터	⑤ 3R 추진(Reduce, Reuse, Recycle) ⑥ 플라스틱 대책 ⑦ 음식물 쓰레기 대책 ⑧ 프레온 대책
기후변동 적응 섹터	⑨ 적응책 강화(기후변동적응방침 책정을 통해 위험 최소화)
공감과 협동 - 개입과 포용 -	⑩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와 사회시스템 변혁 ⑪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강화 ⑫ 도쿄도청의 솔선수범 ⑬ 세계 각지의 도시와 연계 강화 ⑭ 지속가능한 재정 추진



[그림 2] 도쿄도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이미지

http://www.kankyo.metro.tokyo.jp/policy_others/zeroemission_tokyo/strategy.html

http://www.kankyo.metro.tokyo.jp/policy_others/zeroemission_tokyo/strategy.files/zero_emission_tokyo_strategy.pdf

http://www.kankyo.metro.tokyo.jp/policy_others/zeroemission_tokyo/strategy.files/overview_materials-zero_emission_tokyo.pdf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안전한 텃밭 조성을 위해 무료 토양검사 지원

미국 오스틴시 / 환경·안전

미국 오스틴시는 안전한 텃밭 및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위해 ‘소일 키친(Soil Kitchen)’ 프로그램을 운영. 무료로 토양의 중금속 및 영양 상태를 검사해주고,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지침도 함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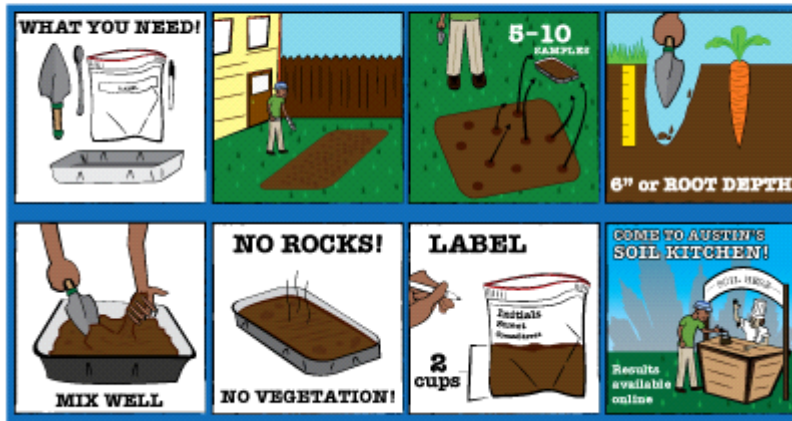
배경 및 목적

- 최근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가정 내 텃밭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가든(communit garden)이 확산
- 그런데 오래된 도시의 경우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지만, 시민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
 - 오스틴시의 경우 오래된 건물에서 나온 납과 비소, 제초제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음
 - 현재 텃밭을 가꾸는 주민들은 이전의 토지 이용 내역을 알기 어려워 토양의 중금속 오염 상태를 알 수 없음
 - 개인적으로 토양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됨
- 오스틴시는 2015년부터 ‘소일 키친(Soil Kitche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텃밭의 토양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오스틴시의 ‘소일 키친(Soil Kitchen)’은 환경보호국(EPA)과 텍사스 A&M 대학과 협력하여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와 영양 성분을 분석
 - 분석 대상 중금속은 납, 비소, 구리, 철, 망간, 니켈, 아연 등
 - 분석하는 영양 성분은 산성도, 전기 전도도(conductivity), 질산태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나트륨 등임
-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 시민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샘플을 수집한 후 시에 제출
 - 분석 대상은 개인의 텃밭과 학교 및 커뮤니티 가든에서 채집한 토양 샘플로, 토양 샘플을 수집하는 방법은 일러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음
 - 분석을 원하는 시민은 약 5~10곳의 토양을 채취한 후 잘 섞고 말려 라벨링한 후 제출

Get Your Soil Tested At Austin's Soil Kitchen!



[그림 1] 토양 샘플 채취 방법을 설명한 일러스트

- 검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 市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결과를 누구나 확인 가능.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지침도 안내
 - 각 성분의 농도와 함께 영양성분의 경우 필요한 비료의 양도 표기
 - 2019년의 경우 총 261개의 토양 샘플을 분석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soil-kitchen>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나무 보호 및 개체 수 증가를 위한 대책 시행

프랑스 보르도市 / 환경·안전

프랑스 보르도市는 이상기후, 건설공사로 인한 훼손, 노화 등으로 개체 수 감소 위험에 놓인 나무들을 보호하고 개체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나무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도심 속 자연’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중심 화두
 - 나무는 탄소 흡수, 공기 정화, 생태계다양성 제공, 여름철 그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
 - 이처럼 나무는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시민 건강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
-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무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음
 -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심어진 나무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노화가 진행
 - 이상기후 현상에 부적응
 - 이상기후와 지나친 매연 배출 등으로 나무 전염병 확산
 - 공사와 야외행사 및 시위 등으로 나무 훼손
- 이와 같은 요인들이 나무의 생명을 위협해 나무의 개체 수를 해마다 크게 줄이고 있음
- 보르도 시의회는 보르도 시내와 외곽의 가로수 및 나무 보호 규정을 2019년 10월 7일 채택
 - 나무 보호 규정은 앞으로 가로수 및 나무 주변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 및 야외 작업 혹은 행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나무 보호 규정은 위반 시 제재, 나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 나무와 녹지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 및 야외작업 혹은 행사 시 준수사항 등을 명시
 - 보르도市에는 현재 600헥타르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약 46,000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음. 이는 숲 속 나무 등은 제외하고 공원 등지에 심은 나무들의 수치임

- 관련 규정 위반 시와 공사현장 등에 위치한 나무들을 훼손했을 경우 처벌조항 마련
- 나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시행
 -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시의원, 관계부서 등으로 나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목 플랜을 시행
 - 2001년부터 시행된 나무 보호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나무가 우거진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도심의 '나무 유산'을 유지하고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식목플랜은 현재 연간 약 1,000그루씩 나무를 심는 것을 약 3,000그루 심는 것으로 늘려 2025년까지 총 20,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나무가 우거진 곳을 나무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정 나무 보호를 위해 나무 보호 지구를 지정
 - 여름철 그늘이 부족한 지역에 나무를 심음

http://www.bordeaux.fr/ebx/pgPresStand8.psm1?_nfpb=true&_pageLabel=pgPresStand8&classofcontent=presentationStandard&id=139690

<http://www.aquitaineonline.com/actualites-en-aquitaine/bordeaux-metropole/8382-bordeaux-objectif-zero-plastique.html>

<https://www.club-presse-bordeaux.fr/evenement/point-presse-bordeaux-objectif-zero-plastiqu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음식물쓰레기와 식재료 낭비를 줄이는 요리법 등 제공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환경·안전

음식물쓰레기와 식재료 등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바르셀로나시에서 시행 중. 바르셀로나시의 산 안드레우 지역 환경교실에서는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요리법을 제공. 카탈루냐 폐기물청에서도 각종 식재료 보관·관리 방법과 활용 가능한 요리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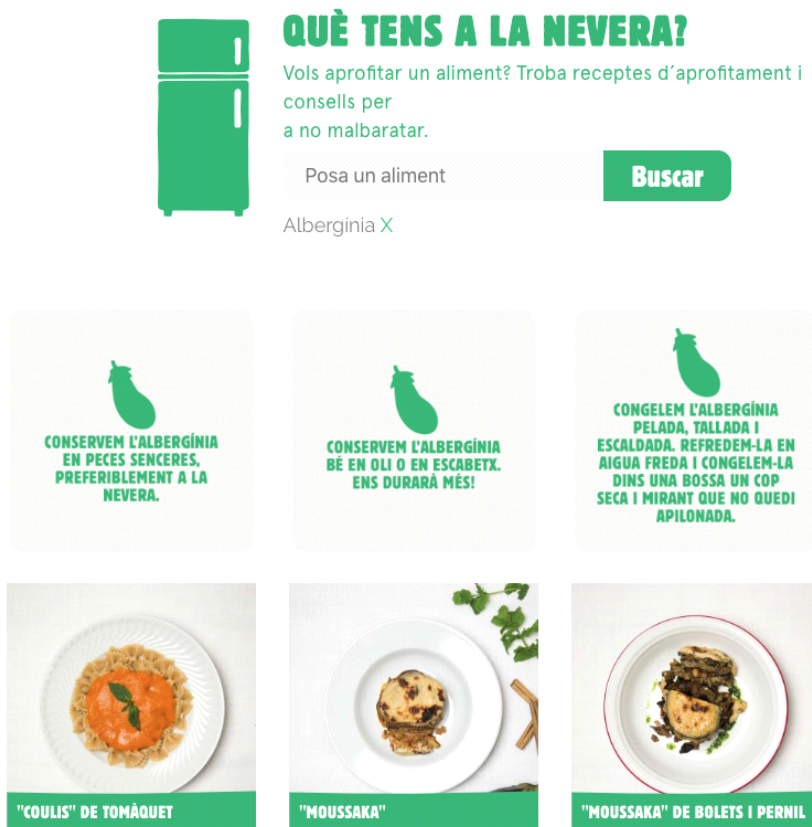
배경 및 목적

-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폐기물청은 ECOWASTE4FOO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
 - ECOWASTE4FOOD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친환경 식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럽 7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 카탈루냐의 주도인 바르셀로나시에 위치한 산 안드레우 지역 환경교실에서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모임에 필요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산 안드레우 지역 환경교실은 산 안드레우 지역에 지속가능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협회 활동을 지원

주요 내용

- 바르셀로나 지역 환경교실 운영
 - 바르셀로나시의 지역별 시민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환경 관련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성 문화를 장려
 - 현재 산 안드레우, 사그라다 파밀리아, 레스 코르츠 등을 비롯한 바르셀로나 시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시는 시내 전 지역에 지역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산 안드레우 환경교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음식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식료품 구매법과 요리법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
- 음식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솜젠데프로핏(somgentdeprofit)
 - 카탈루냐 폐기물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식료품 관련 제조 비용, 자원, 자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이를 위해 솜젠데프로핏(somgentdeprofit)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방법과 활용가능한 요리법을 제공
 - 음식물 낭비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요리 문화를 장려
 - 마술과 요리를 결합한 쇼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교실을 통하여 바람직한 음식물 관리 및 활용법을 알리고,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장려
 - 음식 및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관련 정보를 제공



[그림 1]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재료들을 입력하면 해당 식재료의 보관법 및 해당 식재료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요리법이 제공되는 솜젠데프로핏(somgentdeprofit) 웹사이트

- 취약계층의 식재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에스피골라도르(espigoladors)
 - 에스피골라도르(espigoladors)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 생산자와 합의해 식재료 생산 과정에서 생산량 초과, 판매 감소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과일 및 채소 등을 현장에서 모으고, 이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전달
 -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로 과일 및 채소를 가방에 담아갈 수 있음

시사점

- 식품 폐기 및 식재료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판단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una-navidad-mas-sostenible-gracias-al-aula-ambiental-del-distrito_891677

<https://ajuntament.barcelona.cat/santandreu/es/aula-ambiental>

<https://ajuntament.barcelona.cat/lafabricadelsol/ca/content/aules-ambientals-de-barcelona>

<https://sorgentdeprofit.cat/>

<http://www.espigoladors.cat/>

http://residus.gencat.cat/ca/ambits_dactuacio/prevencio/malbaratament_alimentari/plaprevencio_ma/

<https://www.interregeurope.eu/ecowaste4food/>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구급차·소방차 등 도로 위 비상차량 안전 강화

미국 일리노이주 / 도시교통

미국 일리노이주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경광등을 켜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Move Over Law’ 시행 중. 2020년부터 이 법률을 더욱 강화해 법규 위반 시 벌금 및 제재의 강도를 높여 도로 위 안전을 제고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주력

배경 및 목적

- 미국 일리노이주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경광등을 켜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Move Over Law’(옆으로 비키는 법) 시행 중
 - 일리노이주에 속한 시카고시 경찰청에 따르면, ‘Move Over Law’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2019년 27대의 경찰차가 무브 오버 법 위반 차량으로 추돌사고 등을 당함
 - 이처럼 해당 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 구조요원 및 일반 시민들과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2차 피해 다수 발생
 - 2019년 1월에는 시 외곽지역 글렌뷰 인근 I-294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 발생
 - 이 사고를 계기로 무브 오버 법을 강화해 시행. 이 법은 스캇 램버트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스캇 법(Scott’s Law)’이라고도 불림

주요 내용

- ‘Move Over Law’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수위 강화
 - 해당 법규 위반 시 최소 250달러(약 31만 원)의 벌금 부과. 두 번째 위반 적발 시에는 최소 750달러(약 93만 원)의 벌금 부과
 - 위법 행위가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경우 각각 3~12개월, 6~24개월 면허 정지 처분
 - 강화된 처벌 수위로 해당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난폭 운전자들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기대
-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공사 노동자 등을 포함해 적용

- 강화된 무브 오버 법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도 시행
 -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및 각종 이민자 커뮤니티 대상 교육 시행
 - 교통체증이 심한 시카고 도심뿐만 아니라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 및 고속도로 사고가 잦은 일리노이주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도 교육 시행
- 해당 법규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유도해 도시 전반의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

향후 계획

- 일리노이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행안전교육 및 대책 등 시행
 -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포되는 홍보전단지를 지역 학교 등에 게시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함
 - 운전면허 갱신 시 무브 오버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법규 준수를 촉구
 -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법규에 관한 문제 추가
 - 벌금 및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



[그림 1] 무브 오버 법 관련 홍보 픽토그램

https://www.cyberdriveillinois.com/publications/pdf_publications/dsd_a207.pdf

<https://chicago.cbslocal.com/2019/08/05/move-over-law/>

https://en.wikipedia.org/wiki/Move_over_law

<https://wqad.com/2019/11/04/illinois-state-police-see-major-spike-in-scotts-law-violation-citations/>

<https://www.isp.state.il.us/docs/1-163.pdf>

출퇴근시간대 다인승차량도 이용가능한 전용도로 시범운영

중국 상하이시 / 도시교통

상하이시는 버스전용차로 이용률이 낮은 후이공루(沪宜公路)의 8.2km 구간을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버스뿐 아니라 2인 이상 다인승차량도 이용가능한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 시는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나홀로 차량의 운행을 줄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배경 및 목적

- 상하이시의 후이공루(沪宜公路)는 시내 중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버스노선이 적고 버스전용도로 이용률도 낮음
 - 시는 버스전용도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버스전용도로와 다인승차량 전용도로의 개념을 합친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와 다인승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
 - 시는 이 전용도로를 적극 활용하면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나홀로 차량의 운행 비율을 낮춰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1] 상하이시 후이공루(沪宜公路)에 설치된 전용도로

주요 내용

- 市 공안국과 자딩구 인민정부는 후이공루(沪宜公路) 8.2km 구간에 버스뿐 아니라 다인승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
 - 이 전용도로는 황색 점선으로 차로를 표시하고, 도로 바닥에 흰색으로 운영시간과 공공버스 및 다인승차량 전용도로임을 표시
 - 전용도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10시, 오후 16~19시. 토·일·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이 이 전용도로에 진입 가능
 -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상 승차한 차량도 이 시간대에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음
 -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화물차, 도로교통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 진입을 허용
- 市는 규정을 위반해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적극 단속할 예정
 - 市는 전용차로에 자동촬영 감시통제 시스템을 설치해 차량의 정면, 후면, 측면을 촬영하여 차량 내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
 - 위반하는 차량은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1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

향후 계획 및 정책 평가

- 市는 전용도로 운영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외곽지역으로 확대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
 - 상하이 도심의 버스전용도로는 이미 이용률이 포화 상태. 따라서 상하이 도심에 이 전용도로를 도입하게 되면 대중교통의 운행효율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이 전용도로는 버스전용도로의 이용률이 낮은 교외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으로 판단
- 이 전용도로의 설치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일부 전문가는 이 전용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바쁜 출퇴근시간대에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겠지만, 만약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혼잡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http://news.sina.com.cn/c/2020-01-09/doc-iihnzhha1310756.shtml>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4411/u21aw1418567.html>

<https://www.shobserver.com/journal/2020-01-02/getArticle.htm?id=285523>

세계도시동향 제474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3월 2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